



강동완 조선대 총장 취임식 개교 70주년 기념식도 열려

개교 70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가 29일 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강동완 신임 총장을 비롯, 윤장현 광주시장, 장휘구 광주시교육감, 김성산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취임식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홍·양형일·김주훈·전호중 전임 총장과 환경미화원, 순환버스 기사, 시각장애학생 등도 초대됐다.

행사는 1부·취임식과 2부 개교기념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취임식은 조선대학살림동지회 임회권유문 낭독, 서재홍 총장이 인사, 제 16대 강동완 총장 취임사와 강현욱 이사장·윤장현 광주시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강동완 총장은 취임사에서 “굴곡의 역사를 거치며 건학 7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견뎌온 조선대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원과 동문, 조선대를 사랑하는 시민의 위대한 DNA를 모으자”면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지난 1946년 4월 전국에서 7만2000여명의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조선대학살림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해 9월 29일 4개 학부 12개 학과, 정원 1194명으로 개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청년들 꿈 찾고 능력 펼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광주청년센터 the숲’ 서일권 센터장

“청년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도 괜찮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라고...”

서일권(44) ‘광주청년센터 the숲’ 센터장은 “최근 ‘청년문제’가 심각하다고들 말한다”며 “단순히 청년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실은 모든 세대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지역에서는 처음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조직 ‘광주청년센터 the숲’이 문을 열었다. 서 센터장은 지난 1년간 수많은 지역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누구보다 청년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 보았다.

“부모가, 사회가 짜놓은 틀에 갇혀 자신의 꿈을 찾을 생각조차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죠. 연애와 결혼, 출산마저 포기하고 앞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세대 자체가 무기력해지면서 미래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조차 없어집니다.”

그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도닥도닥 수다방’ 창업아이템 등을 도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도전사업’과 본인이 원하고 필요한 강의 공모에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인성

작년 지역 최초 청년지원조직 개원
창업아이템·아시안커뮤니티 진행
도닥도닥 수다방선 고민 상담도

맞춤 프로그램’, 한끼 식사와 정을 나누는 ‘도닥 데이(Day)’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서 센터장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청년사람들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합니다. 하루 5명 중 1명의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사회... 이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만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도닥도닥 수다방’ 이야기를 꺼냈다. 또래의 청년상담사가 타로 카드와 별자리, 미술 등을 매개로 편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다. 약 40분의 짧은 시간에도 청년들은 ‘후련하다’며 눈물까지 터트리곤 한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을까요?”라고 되묻던 그는 “예전에는 선배들과 술자리에서 고민을 나눴지만

지금은 선배들이 더 힘든 세상이다”고 말했다.

서 센터장이 ‘도닥도닥 수다방’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가 하나 더 있다. 광주로 유학을 온 아시아 청년들과 광주청년을 이어주는 ‘아시안 커뮤니티’다.

유학생들은 각 나라별 커뮤니티가 있어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역시 광주사람들이 정이 많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등 아시아의 상당수 국가들은 한국의 도시 중에서도 광주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광주청년들에게 분명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일권 센터장은 “청년은 무조건 도와주고 보살피야 할 존재가 아니라 완성된 시민이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자신의 꿈을 찾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닥도닥 수다방’ 등 광주청년센터 the숲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gjthefore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32-1939.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청렴선포식·청렴교육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9일 청렴선포식을 열고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광주환경공단 제공>

낙도 초등생 中 만리장성 체험 나들이

완도 생영초 학생·학부모 13명 현장학습 떠나

동문 조광철 회장 후원

인재육성을 위해 힘을 보탤다. 그는 광주기아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고향을 위해 힘써온 숨은 독자이다.

학생들에게 해외체험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 등을 경험함으로써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강민준(6학년)군은 “다른 나라를 아는 것이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이번 중국 현장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와 함께 동북아시아를 열어가길 중국에 대해 더 많이 느끼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경순 생영초 교장은 “생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선도하

는 학생들이 됐으면 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김경순 생영초 교장은 “생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선도하

동구장애인복지관, 총장축제 나눔활성화 사업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장세종)은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행복나눔 총장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장축제와 함께 하는 나눔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동구장애인복지관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역축제나눔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행사에서는 ‘마음나눔, 재능나눔, 생명나눔’을 주제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광주시 금남로 광주 518역사문화기록관 앞에 마련된 ‘마음나눔’ 부스는 ‘기부 문화’를 유도하는 ‘연상모금함’, ‘시각장애 이해를 돕는 ‘오감체험 암막부스’ 등이 운영된다.

동구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총장축제에서 마음껏 즐기면서도 서로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나눔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 062-229-9701.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고3 대상 ‘취업캠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지사장 김철원)는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고3학생과 특수학교 전공과 1·2학년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9~30일 보성에서 ‘취업캠프’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광주장애인고용공단 등 15개교 학생 교사 70여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장애학생에게는 구직역량강화 특강과 사업주와 만남의 시간을 제공했다. 교사들에게는 진로성숙도 향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진로지도 특강을 실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의 장이 됐다.

그밖에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워크투게더센터 사업 방향을 논의했으며 천연방향제 만들기, 녹차밭 투어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체험활동도 진행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단기 4349년 개천절 행사 광주서 잇따라 열린다

단기 4349년을 맞이해 10월3일 광주에서 개천절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사)국조송모회(이사장 염홍섭)가 주관하고 광주시가 주최하는 개천 대제·개천절 경축행사가 오전 9시3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단성전에서 열린다. 단군 왕검의 홍익인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공연과 함께 ‘아시아 이상주의’ 저자 이흥범 교수 특별강연이 열린다. 이 교수는 ‘역사 광복과 흥의 민주주의’ 주제 강의에서 홍익인간 정신을 통해 들여다 본 역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개천대제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후 조선시대까지 거쳐 내려온 전통 제례의식으로 한때 중단됐다가 지난 1998년 국조송모회와 민족정기회 등의 노력으로 복원됐다.

또 광주민학회는 같은날 오전 11시 무등산 토끼등 천제단에서 ‘무등산 개천제’를 연다. 민학회는 지난 1986년 ‘민(民)과 관련한 모든 삶을 살펴보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다.

원래 입석대에 있던 천제단은 1937년 일제에 의해 없어졌다가 광복 후 의재 허백련 화백이 봉황대 부근에 다시 만들었다. 의재 선생 사후 제자 모임인 연진회가 봉황해왔으며 지난 1988년부터는 민학회가 이어오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하윤(충남 서산 치기공사 대표)·이혜숙씨 장남 원범군 정영수(전남대 부등산학 전담강사)·황혜성씨 장녀 다은양=10월3일(월) 오후 1시 충남 서산시 아르텔레 당간벤치, 당일 오전 9시 광주시 남구 빛고을교회(백운광장 버스정류장)·9시30분 전남대 치과병원 앞 전세버스 출발.

▲김준호·신옥자씨 장남 현진군 안숙·정진아씨 차녀 형원양=10월8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승정중앙교회.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 =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모집

▲광주 동구자원봉사센터 재능봉사단 양성 교육생 모집=10월12일(수)까지 주 1~2회 봉사활동 가능한 남·녀 시민 모집, 동화구연·풍선아트·네일아트 등 10월 중

부음

▲김만중씨 별세 준영(전 광주시 대변인·현 세종연구소 교육훈련)씨 부친상=발인 10월1일(토) 광주 천지장례식장 202호 062-527-1000.

동문회

▲비야초등학교 동문회(회장 김석원) 한마당 체육대회=10월3일(월) 오전 10시 30분 모교 대운동장, 문의 010-3624-2378.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최창열) 월례회=10월5일(수)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화랑궁회관 062-224-1800.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201호 故김정옥 님(남/70세)</p> <p>子/子婦: 김상수/권지연 女/婿: 김연희, 누나, 유진 本主人: 이복자 ● 발인: 10월 1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1</p>	<p>401호 故학박광인 님(남/63세)</p> <p>子: 박승민, 승규 本主人: 송인숙 ● 발인: 10월 1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3</p>
<p>402호 故유영현 님(남/72세)</p> <p>子/子婦: 유귀철/이선숙, 명철 本主人: 김말자 ● 발인: 9월 30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3</p>	<p>102호 故조현심 님(여/69세)</p> <p>子/子婦: 김대남/최부선, 수남 女/婿: 김희민/남승수 夫君: 김한수 ● 발인: 9월 30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p>

孝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0일(음 8월 25일 乙卯)

<p>子 48년생 생소하기는 하나 재미는 있을 것이다. 60년생 막연하다면 절제할 수도 있어야겠다. 72년생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처하였을 때 성사의 가능성을 높게 된다. 84년생 위험성이 보인다면 우회해야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99, 62</p>	<p>午 42년생 매끄러운 기교가 자연스럽다. 54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더 늘린다면 복잡해지기만 할 것이다. 66년생 계획대로라면 차질이 없었다. 78년생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67, 58</p>
<p>丑 49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능히 제어하는 법이다. 61년생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 있으니 실속을 차려야 할지이다. 73년생 인행을 가려서 해야 만이 후회하지 않으리라. 85년생 일삼아서 벗어날 수 있는 과적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85, 19</p>	<p>未 43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55년생 상황에 맞춰서 참신한 변화를 꾀해 볼 필요가 있으나. 67년생 번거롭더라도 직접 행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79년생 현재 상태로 추진한다면 대체로 순조롭겠다. 행운의 숫자 : 64, 90</p>
<p>寅 50년생 규칙적이고 적당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62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아야 한다. 74년생 부자연스럽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86년생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4, 88</p>	<p>申 44년생 발 빠른 실재 분석과 조처가 절실하다. 56년생 빈틈 없는 계획 수립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68년생 전체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자. 80년생 안전히 있고 있었던 과거 시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행운의 숫자 : 53, 21</p>
<p>卯 51년생 다소 번거롭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습관화 하자. 63년생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75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기필코 이루고야 말리라. 87년생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35, 61</p>	<p>酉 45년생 목표점에 진입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변수가 있다. 57년생 오류를 찾아내서 잘 대처한다면 순행할 수 있겠다. 69년생 초지일관한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81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막상 열어보면 텅 비어 있노라. 행운의 숫자 : 43, 10</p>
<p>辰 40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앞만 보고 뛰어도 된다. 52년생 대의를 도모 하자. 64년생 행세가 석연치 않다. 76년생 앞으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 88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습 고대하여 왔던 바를 반갑게 맞이하리라. 행운의 숫자 : 11, 89</p>	<p>戌 46년생 비슷한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58년생 상이하다고 불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합치한다. 70년생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다. 82년생 절실한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씩 해결되리라. 행운의 숫자 : 25, 31</p>
<p>巳 41년생 미진함을 보충하는 기쁨이 있다. 53년생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 65년생 가까운 이와와 인연이 깊사로 연결되겠다. 77년생 제 몫을 확실히 해낼 것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89년생 이로움이 전개된다. 행운의 숫자 : 03, 86</p>	<p>亥 47년생 평소와 염원해 왔던 바가 이루어지겠다. 59년생 양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서로가 손해 보게 되어 있다. 71년생 관스란 언기는 어려우나 놓치기는 쉬운 법이다. 83년생 참예한 관심사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3, 4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